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21(다 찬양하여라)
※ 교 독 문5(시편8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0장(주 예수 내가 알기전).....
예배기도 1부 차소리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 이
*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 이 땅위에 사랑과 온유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가복음 4:35-41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400장(힘찬 시험 물속에서)
봉 헌 (8구역)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박기환집사	본 문 / 사도행전 20:28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마20:29-34	요한복음서 강해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응답되는 기도”	금요기도회	
탁월한 집사/2과 교회에서	집사직분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축 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오후9시 소예배배설	중보기도, 개인기도
				합심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다음주 기도	1부	한국회집사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1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다음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2월 정선례 방옥남 임병호 홍강의		2부	심재수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리아회	다음주 사라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선우명환집사	
헌신찬양	금주	8 구역	다음주	9 구역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 마가복음 4:35-41

우리는 때때로 인생여정을 배를 타고 떠나는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힘들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피할 수 없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났고 주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넜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항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날, 곧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날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호수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호수에 광풍이 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갈릴리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가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에 들어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의 삶에 대한 실망감이나 자신을 닦하는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인생의 풍랑은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받아야 합니다.

2. 풍랑에 대처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갈릴리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광풍이 일자 그들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날 불어친 광풍은 달랐습니다. 급기야 불르안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는 이같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살아가도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같은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굳이 이런 일까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인생항해에 있어서 선장의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3.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바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풍랑에 대처하는 노력속에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은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 쉽게 풍랑에 파선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불신이 서로 대립할지라도(롬7:21-24)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결단처럼, 전리품으로 획득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다윗의 결단(삼하8장)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인생의 항해에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환경과 일들로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도 광풍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파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시107:28-30).

주현 후 다섯째 주(2월 6일)

제 6 과 주님이 던지시는 불(누가복음 12장 49-59절)

(함께 읽을 말씀 : 예레미야 23장 23-32절, 요한계시록8장1-5절)

1.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 :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12:49). 이 세상의 공허한 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불이었습니다(렘5:14,23:29).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 온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불같은 말씀은 그 병자를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신 불같은 말씀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불덩이가 되어 얼음처럼 굳어진 삭개오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다스리심)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가 지배하던 절망적인 시대에 던지신 소망의 불덩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이며, 능력이고, 충격이며, 도전입니다

2.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 :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일상은 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룹니다(눅17:27). 사람들은 이런 일상이 좋다고 여기며, 변화 없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평화라고 여기는 일상적 삶의 한복판에 불을 던지십니다. 익숙해진 삶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평화로운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굳이 '건물이 무너지려고 한다'고 외쳐서 평화로운 음악회를 망쳐야 할까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눅12:5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려는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불을 지르는 말씀이 그릇된 세계와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말씀에 응답하라 :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떨어지는 불 앞에서도 무감각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날씨를 분간할 줄 알았습니다. 구름이 서쪽(지중해)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덥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눅 12:54-55). 하지만 사람들은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충격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손에 붙들린 채무자(눅 12:58-59)는 그렇게 무감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을 갇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불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감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불덩이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 시대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강력 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아니면 교회생활입니까? 이번 주에, 아니 오늘 주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응해야합니다.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말씀에 응답해 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꾼다면 그 즉시 새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안수집사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오후1시).
2. 2015년 교회수첩이 나왔습니다. 잘못 기록된 주소나 전화번호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2월 평신도 참여예배는 마리아회입니다. 마리아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2월15일).

2월의 행사일정

1. 평신도 참여예배 - 마리아회 / 2월 15일
2. 작정밤기도회 - 2월 23일 -27일 오후8시 / 종합교육실
3. 해든솔선교활동 - 2월 14일 오전 9시
4. 안수집사모임 - 2월 1일 오후1시 / 당회실
5. 권사회기도회 - 2월 15일 오후1시30분 / 교회 본당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김정수 김근중 주종임 김춘자 박치국 이영란 강항구 류종란 김중천 이영선 김태라 김혜경 안복선 김애경 한상호 차소라 강은순 김대봉 정순임 박지영 박기환 한옥자 이문순 허 웅 김순임 안진영 김선자 이종봉 이준호 정선경 박세일 정숙자 서영자 김선주 원혜경
- 감사헌금 : 이문순 박기환 한옥자 박광섭 임한규 임빛나 김선주 원혜경 김영숙 이종춘 심문자 양희임 김지환가정 김동현가정 무명2 (생일) 정선경 이은채 (일천번제) 김동현 (국내선교) 무명 (심방) 이문순 김선자 김연학 김장숙 박경자 최영랑 김중천 이영선 김정수 이명원 이종천 이진아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박기환 한옥자 박치국 이영란 허 웅 김순임 김혜경 함경숙 김선주 원혜경 김귀례 김범진 한상호 차소라 무명 베드로회 마리아회 사라회
- 비전씨앗 : 배영인 김예진 김승호 김울건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이현옥	양석임	4	11,000	10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강은순	4	11,000		한국회
2	정정희	신혜영	이경희	3	10,000	14	공영순	8	김순남	오복실	오복실	10	28,000	30	
3	이준호	함경숙	이종봉	3	13,000	100	이유자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10	34,000	100	
4	김기희		임애경	8	22,000	53	주종임	10	장영분	노순영	김애경	4	14,000	70	장영분
5	이문순	원혜경	대심방	12	13,000	40	원혜경	계				58	156,000	413	
6	류종란	김애자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관란현(觀瀾軒)’

퇴계 이황 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도산서원에는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 건물에는 마루가 있습니다. 조그만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의 이름을 ‘관란현(觀瀾軒)’이라고 합니다. 볼 관자, 큰 물결 란자, 그리고 마루 현자로 큰 물결을 보는 마루라는 뜻입니다. 마루의 앞쪽에는 흐르는 낙동강이 보입니다. 이 관란이라는 말은 맹자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사람이 물을 보는 방법은 물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이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제자들이 글공부해서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관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풍랑도 무섭시 앓아요

영국의 대장 한 분이 인도로 전임되어 가족을 데리고 향해 하다가 풍랑을 만났다.

배가 곧 뒤집힐 듯 요동하니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대장은 태연하여 도리어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안심하게 된 부인이 "당신도 참 냉정하오. 어쩌면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체 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겁도 나지 않으셔요?" 하고 말하자 대장은 아무 말도 없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부인 목에 대고 당장 찔러 죽이겠다고 호령했다.

그러나 부인은, 태연히 웃고 앉아 있었다. 대장이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내의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겠어요"라고 하였다.

이때 대장이 칼을 꽂으며, "울소. 풍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5-5

2015.2.1.

주현절 넷째주일 / 해외선교주일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인 저희에게
충만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주소서.

주님을 사모하던 첫사랑이 식었는지,
구원의 감격을 잊었는지,
죄로부터 거듭난 환희를 잊었는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헌신을 되살려
온 땅으로 흠어지는 교회이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하소서.

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
철책선을 넘어 남과 북을 이어주고,
갈등의 골을 넘어 화해의 땅으로 인도하고,
앞선 자가 뒤진 자와 함께하게 하소서.

오직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이석영집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영통구 매탄동 원천성일 아파트 103동 905호(에스더회)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 최지현